

佛 화이트의 재발견 ‘샤또 라 루비에르’... “혁신은 계속된다”



안상미 기자

Why, wine 인터뷰
마틸드 뤼통 대표



프랑스 앙드레 뤼통의 마틸드 뤼통 대표가 ‘샤또 라 루비에르’를 들고 있다. /이영FBC

화이트 와인인데 뒤로 빠지지 않는다. 양해를 구하지도 않는다. 당당히 여기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신세계(New World)의 과실 폭탄이나 진한 오크풍미가 아니다. 소비봉 블랑 품종 특유의 신선함에 풍성한 아로마와 구조감을 갖췄다. 웬만한 프리미엄 레드 와인 못지 않게 숙성 잠재력이 있다. 보르도에서도 페삭-레오냥의 화이트 와인 ‘샤또 라 루비에르 2021’이다. 페삭-레오냥이라는 테루아가 원래 지닌 특성에서 드라이 화이트 와인을 만들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일 수 없었던 2021년 기후도 한 몫을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앙드레 뤼통을 이끌고 있는 마틸드 뤼통 대표는 최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페삭-레오냥은 프리미엄 레드 와인인 프리미엄 화이트 와인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와인 산지로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곳은 굉장히 드물다”며 “샤또 라 루비에르는 숙성 잠재력 등 화이트 와인의 다양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앙드레 뤼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앙드레 뤼통은 보르도의 전설로 남겨진 와인 생산자이자 와이너리 이름이다. 와인메이커로서 앙드레 뤼통은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와이너리를 재건해 와인의 품질을 올려놓는 것은 물론 주변 경관까지 가꾸어 지역 명소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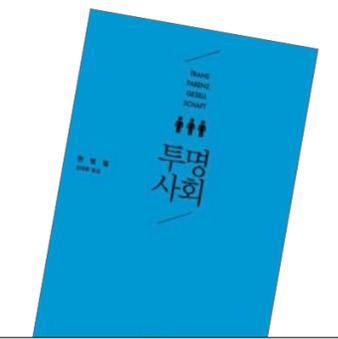
들었다. 와인 재배와 양조에 있어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고, 당시 생산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마케팅에도 적극적이었다. 와이너리로서는 출발점이었던 샤또 보네를 비롯해 현재 샤또 라 루비에르, 샤또 크뤼조, 샤또 구앵스 뤼통 등 6곳을 가지고 있다. 앙드레 뤼통이 지난 2019년 작고한 이후 이제는 2세대와 3세대가 공존하며 와이너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마틸드 뤼통은 앙드레 뤼통의 손녀다. 이번엔 보르도 지도를 펴고 페삭-레오냥을 찾아볼 차례다. 메독 아래로 넓게 분포한 그라브 지역의 북부에 자리잡고 있다. 페삭-레오냥은 앙드레 뤼통이 특별하게 여기는 지역이다. 원래 그라브 지역에 뭉뚱그려 속했던 페삭-레오냥을 특색있는 테루아를 알아보고 새로운 AOC(원산지통체명칭)으로 만든 이가 바로 앙드레 뤼통이다. 뤼통 대표는 “보르도 구시가지와도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며 “보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와인도 바로 페삭-레오냥”이라고 전했다. 그라브나 페삭-레오냥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화이트 와인으로는 소비봉 블랑과 세미옹 품종을 섞어 만드는 것과 달리 샤또 라 루비에르 화이트는 소비봉 블랑 100%다. 힘있는 화이트 와인이나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과도 잘 어울린다. 랍스터나 새우, 아니면 구운 연어도 좋다. 한국 음식 가운데서 생선전은 물론 육전, 잡채 같은 음식과 같이 마시면 좋다. 와이너리의 규모는 크게 확장됐지만 가족 경영 와이너리며, 포도를 직접 재배하는 와인 생산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여러지역에 걸친 방대한 규모지만 샤또 각각의 정체성은 철저히 존중한다. 뤼통 대표는 “대규모 생산자지만 포도를 사들이지 않고 대부분 포도밭 관리부터 양조, 병입까지 직접한다”며 “샤또들이 자신만의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포도를 생산하고 와인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 역시 앙드레 뤼통의 DNA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르도에서는 드물게 토기 숙성 용기인 암포라를 도입하기도 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품종도 시도 중이다. 한국에는 수입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무알콜 와인도 시장에 내놨다. 뤼통 대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와인을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상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반응을 들으며 대단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혁신을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통제사회 만드는 ‘투명성’의 폐해

‘투명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현재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는 ‘투명성’의 폐해를 다룬다. 책에 따르면, 투명성에는 폭력성이 내재돼 있다. 투명성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 인간을 양산해냈고, 이들은 끊임없는 소통과 무제한의 자유 속에서 전면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됐다.



투명사회
한병철 지음/문학과학지성사

규율사회의 파놉티콘은 더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수감자들끼리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막았다. 하지만 디지털 파놉티콘의 주민들은 서로 열심히 소통하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내보인다.

책은 “디지털 통제사회는 자유를 빨아먹고 산다. 이러한 사회가 완성되는 것은 디지털 파놉티콘 주민들이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내적인 욕구에 의해서 스스로에 대해 밝히기 시작할 때다”고 말한다. 통제사회는 특수한 파놉티콘적 구조를 띤다. 서로 격리되고 고립된 벤담식 파놉티콘의 수감자들과 달리 현대 통제사회의 주민들은 네트워크화돼 서로 맹렬하게 소통한다. 고립을 통한 고독이 아닌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이 투명성을 보장한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수성은 그 속의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를 전시하고 드러냄으로써 파놉티콘의 건설과 유지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 개인에 대한 과다 조명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욕망을 조종하고 충족시키는 파놉티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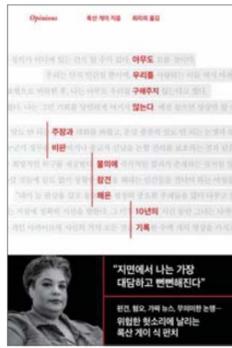
적 관찰의 시선에 몸을 내맡긴다. 저자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파놉티콘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파놉티콘의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파놉티콘은 전체가 된다. 내부와 외부가 가르는 벽은 없다. 자유의 공간을 자처하는 구글과 소셜네트워크는 파놉티콘적 형태를 취해간다고 책은 설명한다. 오늘날 감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는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를 노출하고 전시함으로써 열렬히 디지털 파놉티콘의 건설에 동참한다. 저자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수감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여기에 자유의 변증법이 있다. 자유는 곧 통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235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록산 게이 지음/최리의 옮김/문학동네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정체성 정치부터 인종 문제, 젠더 논쟁까지 당대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페미니스트 저술가 록산 게이가 쓴 칼럼 66편을 묶은 책이다. 저자는 아이티계 흑인이라는 뿌리, 교수라는 지위,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에 입각해 사회의 편견, 혐오, 가짜 뉴스, 무의미한 논쟁 등

위험한 헛소리에 편지를 날린다. 록산 게이는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하고 끊임없이 항의함으로써 스스로를 구할 수 있으며, 다른 이를 구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세상을 구하는 건 항의하고, 분노하고, 기억하는 ‘단단한 말’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436쪽. 2만2000원.



가장 느린 정의

리아 락슈미 피엡즈나·사마라신하 지음/전혜은, 제이 옮김/오월의봄

‘장애정의’는 백인 중심적이고 단일 쟁점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장애인 권 운동에서 주변화됐던 장애인 퀴어, 트랜스, 흑인, 브라운의 삶과 필요, 조직화 전략을 중심에 놓는 운동을 의미한다. 계급·젠더·섹슈얼리티·장애·인종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돌봄을 실천할 수 있을까. 책에 따르

면, 장애정의 운동은 단지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비장애 중심주의를 깨부수는 해방의 전망을 확고히 하는 일이다. 장애정의 운동에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고 함께 움직인다고 저자는 말한다. 부서진 채로도 잘 살 수 있는 불구 미래를 다룬 책. 512쪽. 2만8000원.



자유

앙겔라 메르켈, 베아테 바우만 지음/박종대 옮김/한길사

‘자유: 1954-2021년을 회상하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의 회고록이다. 16년 동안 독일 정부를 이끌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메르켈은 독일 정계뿐 아니라 세계 정치와 국제 사회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권력의 내막을 진솔하게 그려낸 그의 회고록은 자유에 대한 절절한 호소

이기도 하다. “나에게 자유란 내 한계가 어디인지 알아내고, 그 한계까지 나아감을 의미한다. 또한 정계를 은퇴한 뒤에도 배움을 중단하지 않고 멈춤 없이 계속 나아감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내게 자유는 인생의 새 장을 여는 것이다”고 저자는 말한다. 768쪽. 3만8000원.



▲이시바 日 총리, ‘외교능력’ 못매...‘앉아서 약속’·‘단체사진 불참’
▲우크라이나, 영국 순항 미사일 러시아에 발사 /사진 뉴시스

▲키이우 美 대사관, 공습위험 폐쇄 하루만에 정상화
▲일론 머스크, ‘공무원 재택근무 없앨 것’...연방 정부 예산 700조 절약 목표



▲美 의회, MTF 트랜스젠더 여자 화장실 이용 금지...‘민주당 하원의원’ 겨냥
▲아이슬란드, 레이카네스반도 화산 폭발...지난해 12월 이후 7번째 /사진 뉴시스